하얀 조직, 검은 조직

(역대상 27:1~34)

1.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이만 사천 명씩이라 일 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2.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브암이요 그의 반에 이만 사천 명이라
3.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하얀 조직, 검은 조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하얀 조직, 검은 조직'
검은 조직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많은 분들이 "검은 9월단"을 연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검은 9월단'이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내의 '알파타'라는 분파에서 분리되어 나온 극좌파 게릴라 조직입니다. 이들은 팔레스타인 해방을 외치며 테러를 자행하여 요인을 암살하거나 항공기 납치사건 등을 저질렀습니다.
1972년 5월에 이들이 뮌헨 올림픽에서 선수촌에 있던 이스라엘 선수단 2명을 죽이고 9명을 인질로 붙잡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검은 9월단의 존재를 전 세계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과의 협상에 실패한 서독경찰이 강경대응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인질 9명이 모두 숨지는 참사가 벌어지고 테러범들은 사살되거나 생포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에서 말하는 검은 조직은 검은 9월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조직은 검은 조직과 하얀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기준은 바로 조직원들의 마음의 색깔입니다. 조직원들의 마음이 하얀색이면 하얀 조직이고 시커멓다면 검은 조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하얀 조직이 과연 존재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결론적으로는 하얀 조직은 없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만 하얀 조직이 되어야만 하는 조직은 있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이렇게 밖에 이야기 할 수 없는 이유는 지금 현재 교회의 상황이 하얀 조직이 아니라 검은 조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과 연관 지어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할 조직의 특성은 조직원들이 흩어져있더라도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조직원들이 흩어져 있다'는 것은 이들이 흩어져서 포위망을 구축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위를 하는 이유는 포위망 안에 들어온 것들을 사로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포위망이 되어서 무엇인가를 사로잡거나 정복하는 조직이 있고, 한편으로는 모양은 포위망을 이루었지만 실제로는 포위의 의미를 가지지 못한 조직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의 조직은 굉장히 강한 포위망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 집사님이 압구정동에 살고 박 집사님이 성북동에 산다면 압구정동과 성북동의 사이를 포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포위망은 너무나 약합니다. 그래서 점점 지역과 인원을 늘려가면서 포위망을 구축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공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로마를 포위해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이 전형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교회 상태를 보면 오히려 교회가 세상에 포위되어 버렸는데 더 이상 하얀 조직이 아닌 검은 조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창조하실 때에 본래의 색깔은 디바인 화이트로서 즉 하나님의 흰색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이 연합하게 되면 그 마음에는 얼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떤 대상을 좋아하면 사기그릇에 담긴 구슬처럼 서로가 각각의 존재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대상을 좋아하게 되면 그 대상을 흡수해서 오염되거나 전염이 됩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모습을 표현 할 때에 막9:2절에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흰색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얼룩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처럼 흰색이 되고 이러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조직원으로서의 사람들이 흩어져 있을 때에 포위망을 구축하게 되고 그 포위망은 하나님의 역사의 장소이자 활동의 장소가 될 수 있으며 그렇게 해서 세상을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얀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면, 전도와 선교를 하자고 하지 않더라도 포위망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교회와 교인들이 마음의 하얀색을 상실하고도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앞서 역대상 11장과 12장에서 소수의 정예상비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상비군에는 용감한 세 사람이 있었는데 첫째 세 사람과 둘째 세 사람이 있었고 다윗의 삼십인 용사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15절까지는 이런 소수의 상비군이 아닌 군의 준 정규민병대의 성격을 갖는 조직을 말하고 있습니다. 군대를 열두 반으로 나누고 그 안에 각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의 조직 체계를 두게 합니다. 또한 한 반을 이만 사천 명으로 일 년 열두 달 동안에 한 달씩을 근무하게 하였습니다. 다윗 때에 이스라엘의 영토가 가장 광대했는데 이 넓은

영토를 이만 사천 명만으로 방어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신앙의 표현이 군대조직에까지 깊이 들어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2절까지는 열두 지파를 관할하는 지방 행정관의 명단이 나옵니다. 또한 왕실의 각종 재정을 관리하게 될 자들을 임명하였고, 마지막에는 국가의 모사와 군대장관 등 요직에 임명되어 다윗의 자문이 된 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주석서들을 보면 군대 및 행정을 정비하는 다윗의 정치적인 치적에 관한 내용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적은 괄목할만한 통치의 결과물을 뜻하는데, 이것이 과연 치적이라고 할 만할 것인가 의심스럽습니다.
왕이 된 자는 누구나 권력을 강화하고 나라 전체의 효율적인 통치를 위해 군대와 국가행정을 조직하는 일은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이러한 일은 어느 나라에나 있는 너무나 당연하고 필수적인 일인데 다윗에게는 남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지나온 말씀에서처럼 성전을 중심으로 한 아직 세워지지도 않은 예루살렘 성전을 국가조직의 구심점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즉 군대를 조직하고 행정조직을 완비한 것은 국가의 통치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함이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성전을 구심점으로 두고 성전에서 봉사할 레위인들과 제사장의 조직을 완비하였고, 군대와 국가행정의 조직이 뒤따르는데 이것은 성전의 존재의미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군대나 행정조직도 성전의 존재의미에 부속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전의 존재의미를 확장하기 위해서 군대와 행정조직을 완비시켰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다윗의 조직의 특징이고 치적이라면 치적일 수 있습니다. 조직에 앞서 개인의 성전 생활화를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전을 생활화하는 개인들로 이루어져 있음이 전제되고 나서 조직이 뒤따라 나왔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생활화는 날마다 성전의 구조에 나의 마음을 대입해보는 것입니다.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돌판이 들어있었던 것처럼, 내 마음의 지성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름이 들어와 있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마음의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올 수도 있고 돈이나 다른 이름들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소의 분향단이 뜻하는바 그 들어온 이름을 추구하며 살게 됩니다. 떡 상이 뜻하는바 그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를 추구하므로 획득하여 배 부르려하고 만족하려고 합니다. 또한 등대가 뜻하는바 그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를 추구하기 위한 과정에서 옳고 그름의 판단과 식별이 생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이 들어와서 그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로 기뻐하려는 나를 번제단에서 죽이고, 하나님을 맞아들일 수 있는 디바인 화이트 즉 하나님의 흰색이 되는 것이 성전 생활화입니다.
직장이나 가정이나 어디에서든 성전을 생활화하여 마음이 하나님의 흰색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다윗은 국가와 조직을 정비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성전 생활화를 하는

사람들이 흩어져서 비어있는 공간은 포위되고, 그 공간에는 이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뜻이 강력하게 임하셔서 서서히 정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정복되는 것이 다윗이 왕으로서 생각한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이었습니다.
각 개인이 몸의 실핏줄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각 가문의 우두머리나 군대의 천부장과 백부장 같은 사람들은 대동맥이 되고 실핏줄을 잇는 중간 단계의 핏줄들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각 개인이 성전을 생활화함으로서 모든 조직에 까지 하나님의 뜻이 통하고 그물처럼 하나로 엮이는 나라를 꿈꾸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전달하고자 하는 조직의 의미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성전 생활화의 완성인 십자가 생활화를 하는 교회를 찾기 힘들어졌습니다. 많은 귀한 말씀이 전해지고 있지만 십자가가 생활화되지 않는다면 모든 말씀은 교회를 떠날 때에 같이 사라지고 맙니다. 예배당을 떠날 때에 우리는 오감의 관문을 통해 들어오는 세상의 감각재료들에 휩싸여 버립니다. 그로 인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사건과 사람과 대상들에 반응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획하게 됩니다.
이는 곧 하나님만이 들어와 계셔야 하는 마음에 세상 것이 들어왔음으로 더럽혀지는 것이고, 이 더러워진 상태로 계속해서 만지고 행동하는 것마다 오염이 확산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의 지성소에 자녀를 담고 분향단의 기도처럼 성공과 형통을 추구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녀가 성공할 때에 떡 상의 의미대로 배부를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대의 의미대로 자녀의 형통에 관계되는 것만이 유익한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해로운 것이라고 여기며 그러한 마음으로 자녀를 대하면 자녀 또한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교회에 모였는데도 설교 또한 십자가 생활화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더 잘 얻기 위하여 충성하고 봉사하라는 식으로 교인들을 이끌어 갑니다. 그렇게 된다면 교회는 검은 9월단만큼이나 검은색을 띄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십자가 생활화를 하는 여러분들께서 교회를 나가실 때에 교회가 십자가 생활화와 동떨어져 있음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럴 때에 몸은 현실의 교회에 속해있지만 진짜 교회를 이루는 이들은 마음이 십자가에서 승천까지의 공간에 머물게 됩니다.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여러분이 지역교회를 나간다고 해서 그 교회의 교인인 것은 아닙니다. 본래 교회란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와 승천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보내는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에 대해 죽는 지점입니다. 흩어져 살고 있을지라도 세상에 대해 죽고 하늘에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결단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진짜 교회인 것입니다. 지역 교회의 교적에 이름을 올린 자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가는 지역 교회에서 십자가 생활화를 하려는 사람이 없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교회에서 여러분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이의 공간을 포위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선교지역입니다. 우리는 선교를 하려면 아프리카 같은 오지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교회들이 선교지인 것입니다. 교회가 검은 조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감각재료들을 마음으로 끌어들여서 반응하므로 내가 생각하고 붙잡고 판단하는 동안에는 모두 더러워지고 맙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결국 십자가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단 하루라도 빼놓고 설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십자가를 뺀 설교는 설교로서 완성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한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십자가 생활화로 귀결되지 않는다면 모든 말씀은 예배당을 떠나면서 끝나버리고 맙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었던 다윗의 행정조직의 특성을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들음의 조직입니다. 하얀 조직은 들음의 조직입니다.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교인들이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을지라도 이들은 오감의 관문을 통해 들어오는 삶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께서 이 현실을 아시고 계시며 생각이 있으시다는 것을 떠올립니다.
자녀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한 마디 하고 싶더라도 하나님이 먼저 알고 계시며 생각이 있으시다는 것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 마음 속에는 세상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민은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생각을 받는 자들입니다. 먼저 알고 계시고 먼저 생각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받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민은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나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에 대해서 한 마디도 말을 하지 못합니다. 십자가에서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하고 싶어 하는 내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있는 것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생각이 있으시다’라는 말씀이 굉장한 신앙적 연륜과 신앙적 통찰과 지식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신데 그 앞에서 내가 왜 생각을 하고 입을 놀립니까?
대통령 앞에서 입을 놀리면 그것이 바로 최순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입을 놀릴 수 없습니다. 희한한 것은 십자가를 마음에 기억하고 죽었다고 생각하면 따라오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있는 것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생각하고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밖에 없고 인정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정하고 나면 마치 수정 구슬이 진흙탕 속에 백년을 있어도 변함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봇

물 터지듯이 이 세상의 감각재료들이 오감의 관문을 통해 마음에 쇄도해도, 하나님께서 생각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시고 판단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 그런 감각내용들에 대해서 수정구슬은 오염되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삶의 현장에서 구르고 굴러도 마음이 오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한 가지 사건만이라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반응하므로 생각하고 판단하면 순식간에 오염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기억하고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끊임없이 고백합니다. 그런 사람이 강북에 있고 강남에 있으면 포위되면서 하나님의 생각들이 마치 실핏줄 같이 흘러 들어오면서 그 사이가 점점 더 하얀색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교회가 이렇게 많아도 세상이 하나도 변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 십자가 생활화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생각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각을 하고 입을 놀리므로 오염되는 것입니다. 배설물이 묻은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더러워져서 어느덧 하얀색 조직의 교회는 사라져버리고 교회라는 이름하에 세상보다 더 탁한 검은색의 조직이 등장했습니다.
오늘 조직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조직에 관한 얘기는 교회의 얘깁니다. 교회는 조직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십자가를 생활화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생활화하기만 하면 조직의 형태나 조직의 방식이 좀 열등하고 모자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역 교회의 조직이 교회가 아니라 지금 이 십자가 복음을 듣고 있는 자들이 교회입니다. 이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둘러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하얀 조직인 교회를 이 세상에 두드러지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십자가 생활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